

4 뉴스

서울캠 가을 대동제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

임주양 기자 0816wndid@khu.ac.kr

【서울】가을 대동제 ‘MASTERPEACE: 월하’가 안전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컸던 곳은 노천극장이었다. 무대가 진행되는 노천극장은 객석 계단이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다. 무대를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인 계단은 가파르며, 오래된 시설 탓에 계단 대부분이 부서져 있다.

노천극장과 그 주변 공간이 비좁은 편이라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스탠딩 구역에선 한 사람이 넘어질 경우 연쇄적인 압사 사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지난 11일, 총학은 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에게 관람 중 일어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원활한 인원 통제를 위해 동대문구 경찰서와 협력해 인원 통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총학은 대동제를 앞둔 지난 8

일 많은 인파에 대비해 노천극장의 부서진 돌계단을 보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축제에서는 경희인존에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했다. 이전엔 재학생부터 교직원, 경희중·고등학교 학생 등 경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다. 총학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 이유로 ▲상대적으로 작은 몸집으로 인한 부상 가능성과 빠른 대처 어려움 ▲미성년자 주류 노출 가능성 ▲통제에 따르지 않는 미성년자 다수 ▲신분 확인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총학은 축제가 시작되기 전 외부인이 신분증을 대여해 경희인존에 출입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신분 확인자가 철저히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축제 당일 총학은 신분증과 학생증, 실제 얼굴을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며 의심스러운 경우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알만한 질문을 던졌다.

지난 14일 축제를 관람한 고가연(행정학 2022) 씨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질서를 잘 지켜 관람한다면 안전하게 남은 축제도 마무리될 것 같다”며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여자부 개인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예후(스포츠지도학 2021) 선수의 모습.

(사진=양궁부 제공)

예선 8위의 당당한 반란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국제】지난달 24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26회 한국대학연맹회장기 전국양궁대회 여자부 개인전 부문에서 우리학교 양궁부 김예후(스포츠지도학 2021)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예선 8위로 토너먼트에 오른 김 선수는 16강, 8강을 연이은 승리로 장식했다. 운명의 장난처럼 4강에서 우리학교 염혜정(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를 만난 김 선수는 염 선수를 6대 2로 누르고 결승에 도달했다. 4강에서 패한

염 선수는 3위에 입상했다.

결승에 오른 김 선수는 세트스코어 7대 3으로 한국체대 이윤지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1세트와 3세트에서 승기를 잡아 기선을 제압한 김 선수는 4세트에서 5-3으로 추격당했지만, 이내 5세트에서 연달아 나온 엑스텐 두 발로 결승전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이날 우승을 차지한 김 선수는 “양궁을 시작하고 개인전 첫 우승이라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개인전 우승을 더 많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하기 전 좋은 성적을 더 내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라며 다짐을 밝혔다. 우리학교 양궁부 김희관 코치는 “예선전에서 생각보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토너먼트에서 과감하게 임해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자신감이 공격적인 게임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당차게 경기를 잘 이끌어 가준 선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우리학교 양궁부는 오는 18일부터 예전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남·여 양궁 종합선수권 대회와 22일부터 열리는 2024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앞두고 있다.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제72기 신입기자 공개모집

지원자격

1. 경희대학교 양 캠퍼스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 (1학년, 2학년)
2.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자

2023년 9월 20일(수)
서류제출 마감

모집전형

1. 신입기자(0명)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2. 뉴미디어기자(0명) (영상 제작 및 포토샵이 가능하거나 뉴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자)

선발일정

- 1차 서류제출 마감 : 9월 20일(수)까지
- 2차 면접평가 : 면접 시간은 응시자의 일정에 따라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원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 배너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대학주보: media.khu.ac.kr/khunews)

활동혜택

- 기사 작성 시 원고료 지급
- 해외취재 기회 제공

